

2019 후기고 결과 분석

내신 경쟁 피하자! 선호 학교 분산 현상 뚜렷

고등학교에도 새내기가 입학한다. 올해 입학생들은 학교 선택부터 지원까지 수많은 변수와 마주했다. 첫 동시 선발, 정시 선발 인원 증가로 대표되는 대입 개편안 발표 등은 학생들의 지원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학교 선호도가 바뀐 것은 사실일까? 일반고 지원·배정을 중심으로 2019 후기고 결과를 들여다봤다.

취재 정나래 기자 lena@naeil.com

도움말 남상미 주무관(서울시교육청)·전병철 장학사(충청북도교육청)

최근묵 장학사(대구시교육청)·한희숙 장학사(경기도교육청)

최이권 교사(서울 연주중학교)·이해웅 소장(타임교육입시연구소)

POINT 01

동시 선발이 미친 영향은?

수도권 일반고 지원자 증가, '학령인구' 때문

지난해 후기고 입학 전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동시 선발이다. 외고·국제고·자사고가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학생을 모집하면서, 어떻게 지원 전략을 짤 것인지 관심이 모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고 지원자는 증가했다.

단, 지역에 따라 원인은 다르다. 일반고를 단계별로 배정하는 수도권과 광역시의 일반고 지원 증가는 동시 선발 효과로 보기 어렵다. 학령인구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이며, 특히 서울은 자사고 추가 모집을 억제해 일반고 진학자가 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까지는 사회 통합 전형 미충원 인원의 10%를 일반 전형에서 추가로 모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이 제도가 없어지면서 약 700명에 달하는 인원이 일반고에 배정됐다.

서울 연주중 최이권 교사는 “서울은 일반고 1단계 배정 비율이 20%에 불과하고, 선호 학교 쏠림 현상이 심하다. 지원자 입장에서 자사고나 외고 지원에 대한 불이익을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다. 의대를 희망하지 않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학업 분위기나 대입 실적을 우선시하는 기존의 지원 경향이 유지됐다. 강남의 경우 전국 단위 자사고인 하나고와 강남 지역 자사고, 대원외고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았다. 또 외고와 지역 자사고 중 한영외고나 중동고 지원자가 예년보다 꽤 늘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고 말했다.

'지방 순 배정' 도 지역, 자사고 지원 크게 위축

반면 도 지역은 동시 선발이 일반고 선택을 유도했다. 배정 방식의 영향이다. 지방 순으로 배정(본지 870호 '아는 만큼 간다! 고교 배정 완전 정보' 참고)하는 곳은 세종시와 경기·충남·충북·전남·전북·경남·경북권이다. 세부 방

법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관내 여러 학교를 지망 순서대로 지원하면 제1지망부터 차례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정원이 넘치면 무작위로 추첨해 배정하고, 탈락자들은 다음 지망 학교에 재배정하는 것을 반복해 학군 내 고교 정원을 채울 때까지 진행한다. 선호도가 높은 학교는 1지망에 적어내지 않으면 사실상 진학이 불가능한 구조다. 외교·국제고·자사고를 지원하기 위해 1지망을 비우면 탈락 시 2지망부터 배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선호 학교는 남아 있지 않거나 인원이 적어 끝지망 혹은 미희망 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다. 지원 시 위험 부담이 높은 셈. 실제 경기·세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학령인구 증가의 수혜가 없는 곳에서 일반고 지원이 유지된 점을 고려하면, 동시 선발과 배정 방식이 고교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이 지역의 일반고 지원 증가가 자사고 경쟁률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있다. 도 지역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서울 외 지역 자사고와 전국 단위 자사고 모두 경쟁률이 크게 하락했다. 서울 외 지역 자사고 11개교 중 경기 안산동산고, 부산 해운대고, 대구 계성·경일여고, 전북 군산중앙고 등 5개교가 일반 전형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전국 자사고 10개교의 정원 내 경쟁률을 살펴보면 북일고는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2:1의 경쟁률을 넘긴 학교는 하나고 한 곳뿐이다. 최종 경쟁률을 알리지 않은 포항제철고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임직원 자녀 전형으로 인해 미달됐을 가능성이 높다. 2018학년에는 하나고 경쟁률이 3:1을 넘었고, 민사고·상산고·인천하늘고·외대부고·현대청운고 등 5곳이 2: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하락세가 상당한 셈.

같은 상황인 외교의 경우 자사고보다 하락세가 낮다. 충북 청주외고는 오히려 경쟁률이 올랐다. 도 지역 외교는 공립이라 학비 부담이 낮고 어학·국제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장점이 특정 학생들을 유인했다.

충북도교육청 전병철 장학사는 “도내 학생들은 지역 자사

고가 없어 전국 자사고를 지원하는데 올해 그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탈락 시 2지망 이후 학교에 배정되는데, 아무래도 배정 확률이 낮아진다. 전국 자사고는 탈락 위험이 큰 데다, 높은 학비와 일반고 전환 정책 등에 대한 부담이 지원 심리를 위축시킨 측면이 있다. 관내 일반고가 꾸준히 교육력을 높여 대입에서 고르게 좋은 실적을 낸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전했다.

POINT 02 비선호 학교의 ‘뒤집기’ 사실일까?

선호 학교 쏠림 현상 완화로 보자

올해 후기고 배정 결과가 발표된 이후, 중·고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선택이 예년과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학생들이 쏠리는 전통적인 선호 학교와 비선호 학교의 지원율이 뒤집혔다는 것. 이를 두고 자사고 경쟁률 하락과 함께 공고했던 ‘고교 서열’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 지원 경향의 변화가 엿보이기는 한다. 대구가 대표적이다. 대구 수성구는 서울 강남만큼 교육열이 높는데, 이 지역 학생의 탈 수성구 현상이 올해도 나타났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성구 중3 학생 4천114명 중 15.6%(642명)가 비수성구 고교 진학을 희망했다. 이 중 416명이 비수성구 지역 고교에 배정됐다. 수성구 학생 10명 중 1명은 비수성구 학교에 배정된 셈. 수성구 학생의 비수성구 고교 진학 신청 비율은 2017년 13.2%(612명), 2018년 14.6%(575명)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대구시교육청 최근목 장학사는 “수성구 학생들은 전통적으로 학업 경쟁이 치열한데, 이를 벗어나고자 다른 지역 고교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 시 전체로 봤을 때 여러 학생이 섞이는 것이 시너지를 낼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본인의 성향이나 학교의 특화 프로그램 보고 선택하는 경향이 세졌다. 또 그동안 사립

전통적으로 지역 여고가 명문·선호 학교로 인식되고, 공학은 기피 학교로 여겼다. 하지만 최근의 지원율은 공학이 압도적으로 높다. 성적도 우수한 학생이 지원하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고교 선호도가 뒤집혔다고 말하는 것 같다. 또 중상위권 학생들은 과거 상위권 학생을 쫓아갔는데, 요즘은 교과 중점 학교나 자체 특성화 프로그램을 갖춘 학교에 지원한다. 예전에는 최상위부터 중위권 학생이 2~3개 학교에 몰렸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학교의 문을 두드린다

학교의 인기가 높았는데 최근 공립학교 선호로 돌아선 것이 눈에 띄는 변화”라고 밝혔다.

그 외 교육청의 후기고 배정 담당자들은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도시 외곽에 자리 잡아 교통이 불편한 학교, 학생 수가 적은 학교, 여고를 지원하지 않는 경향이 올해도 유지됐다는 것.

다만 상위권 학생들이 ‘분산’된 점은 인정했다. 관내 일반 고가 밀집해 있고, 선호·비선호 학교가 뚜렷하다고 알려진 충북 청주는 학생 성적을 4개군으로 묶어 배정하는 영향도 있지만, 학생들의 일부 학교 쏠림 지원이 몇 년 새 많이 완화됐다고 설명한다. 광주와 부산 역시 학생들이 선택하는 학교의 폭이 넓어졌다고 알렸다. 이로 볼 때 고교 선호도가 뒤집혔다기보다는 특정 학교 쏠림 현상이 완화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경기 1중 3학년 부장 오교사는 “경기에서는 관내 9개 평준화 지역 모두 여고 기피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지역 여고가 명문·선호 학교로 인식되고, 공학은 기피 학교로 여겼다. 하지만 최근의 지원율은 공학이 압도적으로 높다. 성적도 우수한 학생이 지원하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고교 선호도가 역전됐다고 말하는 것 같다. 또 중상위권 학생들은 과거에는 상위권 학생을 쫓아갔는데, 요즘은 교과 중점 학교나 자체 특성화 프로그램을 갖춘 학교에 지원한다. 예전에는 최상위부터 중위권 학생이 2~3개 학교에 몰렸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학교의 문을 두드린다”고 말했다.

달라진 고교 선택, 원인은 결국 내신 부담

고교 선택의 폭이 확장된 이유는 결국 ‘내신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대입에서 내신의 영향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조금이라도 우수한 내신 성적을 확보할 수 있는 고교에 자녀를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의도가 반영됐다. 면학 분위기와 대입 실적이 우수한 전국 단위 자사고나 지역 명문고에 내신 부담을 감수하며 ‘그래도’ 지원했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지점이다.

특히 올해 고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새 학생부 기재안에 따라 현재보다 기록의 양이 축소된다. 이 경우 교과외 영향력이 더 높아질 개연성이 크다. 학업 경쟁이 센 특목·자사고나 여고에 진학했다가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불안감에 지원을 더 기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후기고 지원 양상은 이어질 전망이다. 타임교육입시연구소 이해웅 소장은 “내신 중심의 고교 선택 흐름이 더 선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학생 수가 줄고, 정시 혹은 수시 교과 전형이 늘고, 종합 전형에서도 교과 외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요소가 확연히 줄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선택 교과외의 다양성은 기준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대다수 학교가 내신 혹은 수능 대비에 맞춰 선택 교과를 준비했다. 과학Ⅱ 교과는 커녕 물리Ⅰ도 지원자가 없어 폐강하는 곳이 적지 않다. 내신 확보가 수월하고 수능도 대비할 수 있는, 즉 성적을 기준으로 학교를 선택하는 흐름이 현재 대입 구조에선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